

# 연금특위 개점휴업… 내년 지방선거까지 논의 지연 우려

정치 변수로 개혁 논의 지연  
재정 불안 가중돼 대책 난항  
정년 연장 쟁점에 사회 혼선  
미래세대 부담완화 해법 필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으로 넘겨졌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 이후 연금개혁 지속을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지만 대선 등 정치권 현안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적립부채, 구조개혁, 정년연장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본격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4월 출범 당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올해 12월 9일을 활동 기한으로 정했는데, 올해 연금개혁 논의가 불충분했던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4월에는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한 연금특위는 지난 6월 대선과 지속되는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지난 9월 21일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서울 시내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부. /뉴시스

자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 ◆ 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민간자문위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적립부채’를 비롯한 쟁점을 논의했다. 미적립부채는 수입을 초과하는 예상 지출액의 총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남아있는 동안에는 부채를 연금 적립분에서 충당한다. 연금 소진 이후에는 미적립부채가 곧 정부 적자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저출생으로 미래세대가 피부양세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민간자문위는 내달 5일과 19일에도 2·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소진을 막기 위한 국가 재정 투입, 기초연금 등 기타 연금과의 연계성 합리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여겨

진다.

최근에는 ‘정년연장’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용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정년을 늦추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정년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8~5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납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금 적립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 지급액도 늘어나, 연금 소진을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연구

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늘리면 기금 소진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내년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연금개혁이 세대를 불문하고 민감한 주제로 부상해왔다.

## ◆ “미래세대 부담 등 대응책 있어야”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98호’에서 “연금개혁의 첫째 과제는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는 3차 연금개혁이 미완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면서 “연금이 소진되면 비용은 미래세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초저출산으로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연금급여연동을 평균수명의 연장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국민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들 대책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후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 교보생명

### 지속가능성 지수

### 생보부문 1위 수상

교보생명은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지난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생명보험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생명보험 부문 평가를 시작한 2010년 이래 16년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수상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입증 받은 데는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생명보험 부문 1위 수상은 교보생명이 추구해 온 혁신과 지속가능경영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ESG 경영을 고도화해 업계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업의 본질을 실천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생명

### 외국인 FP 학습 지원

### AI 번역 어시스턴트

한화생명은 27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FP의 자격시험 학습을 돕는 ‘AI 번역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출시했다.

AI 번역 어시스턴트는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 기반의 학습 영상을 제공하고 연습문제와 모의고사까지 다국어로 지원하는 업계 최초의 AI 학습지원 서비스다. 모든 기능은 모바일 기반으로 구현돼 외국인 FP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 한화손보

### 시그니처 테라피 채널

### 기업 유튜브 최우수상

한화손해보험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 제11회 2025 올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상식에서 기업 부문 유튜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평생 전문 유튜브 채널 ‘시그니처 테라피’ 개설 1년 만에 거둔 성과로 보험 상품과 멘탈케어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가 주목을 받았다.

시그니처 테라피는 지난해 11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과 함께 선보인 평생 전문 유튜브 채널이다. 기존 보험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정신건강 특약을 보장의 영역으로 확장한 데 맞춰, 일상 속 멘탈 케어를 돕는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보험업의 경계를 넘어 고객의 웰니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남양주왕숙 공급 속도낸다… A-24, B-17블록 분양

사전청약 629호, 특공·일반 252호  
분양가격 3.3㎡당 1880만원 수준

정부가 남양주왕숙 등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남양주왕숙 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11개 블록, 8000여 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며, 내년에 약 1만 호 주택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남양주왕숙 A-24, B-17블록은 총



남양주왕숙 B-17 단지 조감도. /LH

881호다. 사전청약 629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호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원 수준으로 A-24블록 55형은

평균 4억6000만원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억6000만원대, 84형은 6억4000만원대이다.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역(가칭, 개통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며, 인근에 유치원, 초·중학교 및 대형쇼핑몰, 호텔 등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실용적 설계가 적용됐으며,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됐다.

다음달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하

며,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마련됐으며, 28일부터 사전청약자 우선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와 LH가 하나로 단합하고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들을 관계부처와 빠르게 협의해 수도권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LH는 9·7대책 공급을 이행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LH의 주택작공 실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새마을금고, 100억 투입 ‘부당대출 방지’ 시스템 고도화

사전 탐지 모니터링 체계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부당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1262개 개별 금고 모니터링 등 검사·감독 내부 통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공지능 전환(AI) 전문가기업인 LG

CNS와 협력해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프로젝트에 약 100억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7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금고별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모델을 마련해 금고의 위험평

가 체계 구축을 돕는 한편, 검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시스템 재구축으로 비효율 업무가 자동화되면 인력 부족이 완화되고, 금고 검사·감독 기능과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앙회는 2019년 전국 새마을금

고의 검사·감독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금고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초창기 117명이던 검사원은 올해 217명으로 86% 늘었으나 전국 3223개 점포를 2년 주기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돼 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도화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상호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